

아르헨티나 OTT 산업 현황

A large, stylized graphic of the KOFIC logo. It features a solid blue square on the left, followed by a vertical blue bar with a circular pattern, and a horizontal blue bar with a circular pattern to the right. The letters 'KOFIC' are written in white acros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bars.

KOFIC

아르헨티나 OTT 산업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아르헨티나 통신원 김유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6 년 1 월 22 일

-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6

Contents

01

들어가는 글 / 4

02

아르헨티나 OTT 산업 현황/ 6

03

아르헨티나 주요 OTT 플랫폼 현황/ 9

04

OTT 관련 주요 이슈 / 10

05

나오는 말 / 1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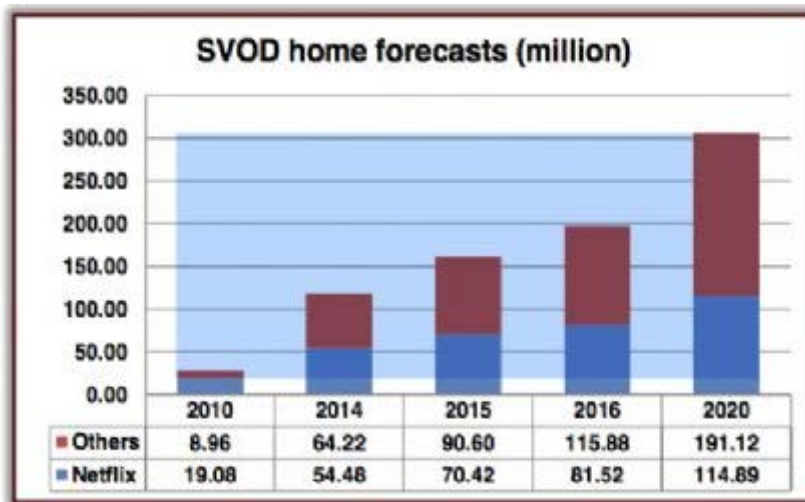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12

1. 들어가는 글

디지털 TV 리서치(Digital TV Research)에 따르면, 2016 년 말까지 1 억 9 천 700 만 가구가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가입자주문형비디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0년에는 3 억 600 만 가구(200 개국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Netflix)로 대표되는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2010 년 2800 만 가구이었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 억 6100 만 가구로 엄청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별 상황을 보면, 앞으로 5 년 동안 미국의 가입자 수는 2200 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2000 만, 일본이 9 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1> 글로벌 SVOD 가입자 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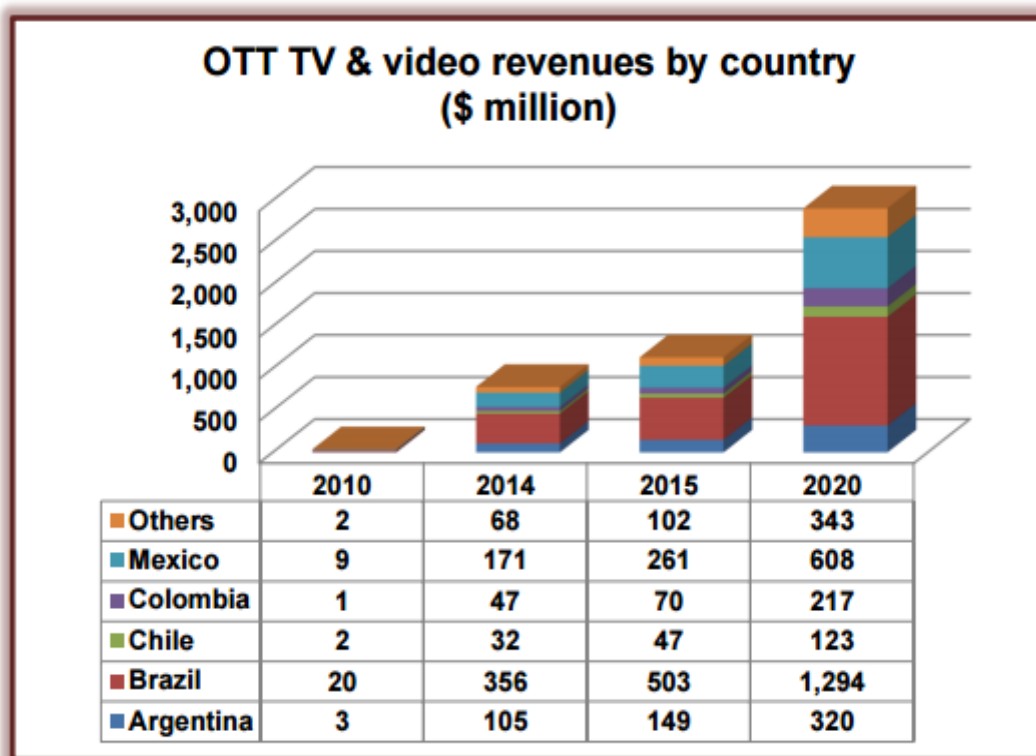
자료출처: Digital TV Research

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온 업체는 당연히 넷플릭스다. 2020 년까지 약 1 억 1500 만의 가입자가 예상된다(2015 년부터 2020 년까지 예상 가입자 수 4400 만 명). 특히 2015 년부터 5 년 동안 미국에서만 가입자 수가 5040 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틴 아메리카도 거대 시장인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데이터시스(Dataxis)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OTT(Over-The-Top) 가입자 수(2015 년)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합쳐서 7,766,580 만 가구로 집계하였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서비스 업체 수는 40 개이고 넷플릭스가 시장점유율 59.7%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클라로비데오(Clarovi Deo)를 운영하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통신사 아메리카 모빌(America Movil)이 18.8%, 디렉티브(DirecTv)가 7.5%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가입자 순은 멕시코 44.8%, 브라질 31.5%, 아르헨티나 7.8% 순이었고 반면 베네수엘라는 0.5%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데이터시스의 후안 파블로 콘티(Juan Pablo Conti)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멕시코는 미국에게서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 있어 다양한 가격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반면, 베네수엘라에서 정치·경제의 불안정, 외환규제로 인해 카드로 달러결제할 수 없는 점, 느린 인터넷 속도로 가입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표-2>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별 OTT TV & VIDEO 수익 추이 변화



자료출처: Digital TV Research

라틴 아메리카의 SVOD 시장은 2020 년에 17 억 4500 만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405 만 가구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 국가별 가입자 수 증가는 브라질이 724 만, 멕시코가 332 만이 늘어나고 콜롬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5 년 라틴 아메리카의 넷플릭스 전체 가입자 수는 648 만 가구이며 브라질 338 만, 멕시코 190 만, 아르헨티나 76 만 4000 가구 순이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전체 가입자 순위에서도 4, 5 위를 차지할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표-3> 주요 국가별 넷플릭스 가입자 수 현황(2015 년 12 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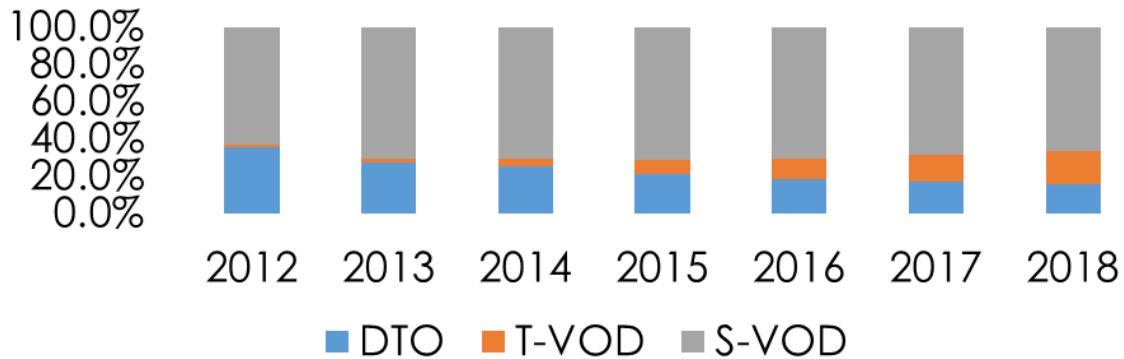
Netflix paying SVOD subscribers by country at December 2015 (000)	
USA	43,541
International total	26,360
Argentina	764
Australia	350
Austria	236
Belgium	300
Brazil	3,338
Canada	3,950
Chile	390
Colombia	810
Denmark	713
Finland	668
France	1,150
Germany	1,208
Ireland	330
Italy	150
Japan	275
Luxembourg	38
Mexico	1,980
Netherlands	1,600
New Zealand	175
Norway	668
Other Latin America	420
Portugal	60
Spain	150
Sweden	1,463
Switzerland	236
UK	4,942
Source: Digital TV Research estimates	

자료출처: Digital TV Research

라틴 아메리카의 SVOD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2018년에는 서비스 유형별 수익구조의 66.5%가 SVOD 타입을 사용할 것이며 TVOD(Transaction VOD, 건당 주문형 서비스)가 18%, DTO(Download To Own)가 15.5%를 차지할 전망이다.

<표-4> OTT 서비스 유형별 수익구조 변화 추이

Total VOD OTT revenues by Service Type (%)
(20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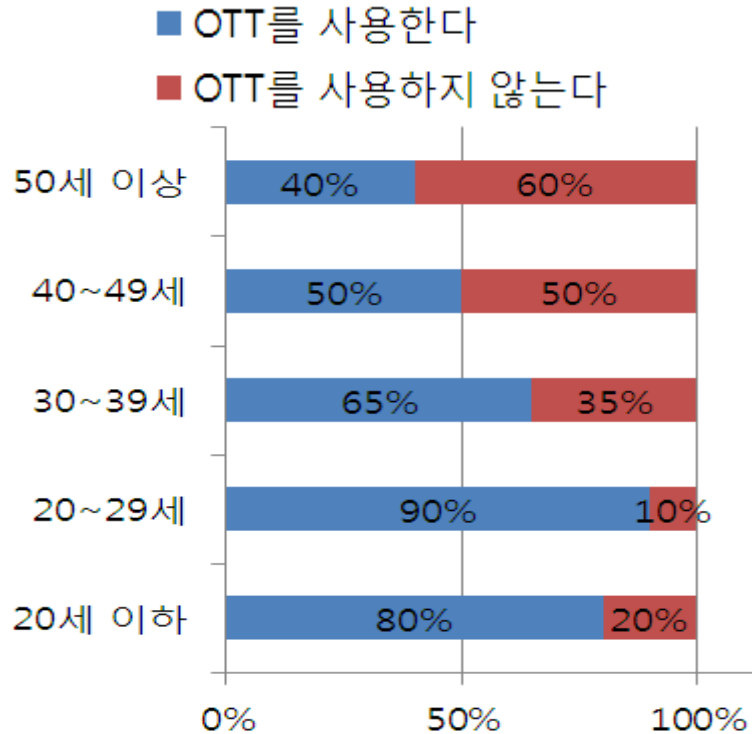
자료출처: Dataxis

2. 아르헨티나 OTT 산업 현황

컨설팅전문업체 카리에르 이 아소시아도스(Carrier y Asociado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OTT 가입자 수는 100 만 가구이고 2018 년에 185 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인은 1 주일에 인터넷을 통해 11 시간을 동영상 보는 데에 할애하는데 OTT 플랫폼 중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76 만 4000 가구, 시장점유율로는 8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텔레포니카(Telefónica)의 온비디오(On Video), 텔레콤(Telecom)의 아르넷플레이(Arnet Play)와 같은 대형통신사들의 자체 플랫폼과 쿠빗테베(Qubit.tv) 등이 나머지 점유율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아르헨티나인의 83%가 OTT 서비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20 세~29 세 사이가 OTT 플랫폼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90%가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50 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40%가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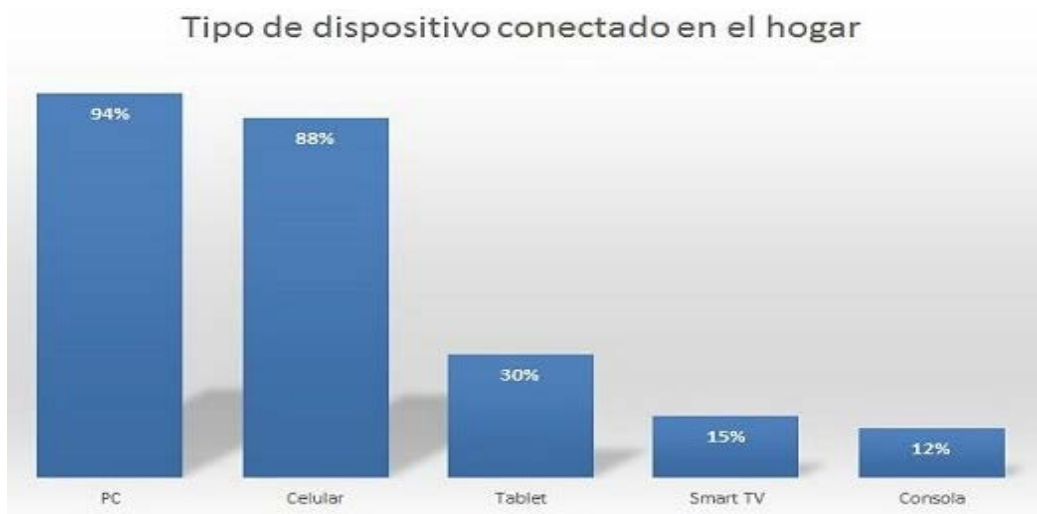
<표-5> 아르헨티나 연령별 OTT 사용 현황(2015 년)



자료출처: Carrier y Asociados

기기별 이용빈도를 보면, PC 가 94%로 단연 높았고 스마트폰(88%), 태블릿(30%), 스마트 TV(15%), 게임 콘솔(12%) 순이었다. OTT 플랫폼 가입자의 평균 이용횟수는 2 회였고 44%가 HD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Ultra HD 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을 통해 아르헨티나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른 국가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어 브로드밴드사업자에게는 고수익 창출의 기회가 되고 있다.

<표-6> 아르헨티나의 기기별 OTT 사용 현황(2015 년)



자료출처: Carrier y Asociados

2016 년 아르헨티나 SVOD 시장의 수익은 9180 만 달러로 추정되는데 2020 년에는 26.22%가 증가한 2 억 3290 만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6 년 TVOD 시장의 수익은 1350 만 달러로 예상되고 2020 년에는 20.84% 늘어난 2880 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3. 아르헨티나 주요 OTT 플랫폼 현황

1) 넷플릭스

세계 최대 OTT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2011 년 9 월 7 일, 남미에서는 브라질(11 년 9 월 5 일)에 이어 두 번째로 아르헨티나(우루과이, 파라과이 동시 런칭)에 런칭했다. 현재 가입자 수는 76 만 4000 만 가구이며 전체시장의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가격은 베이직 7.99 달러, 스탠다드 9.99 달러, 프리미엄 11.99 달러고 가입 후 한달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 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Reed Hastings) 대표는 “가격은 전세계 어디든 지역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달러로 받을 것”이라며 변함 없는 가격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1] 넷플릭스의 2011 년 9 월, 아르헨티나 사업설명회



자료출처: <https://www.fayerwayer.com/2011/09/asi-sera-netflix-en-argentina/>

2) 온비디오(On Video)

2014 년, 스페인 국적의 통신사업자 텔레포니카에서 런칭한 OTT 플랫폼. 영화, 시리즈 등 15,000 편 이상의 영상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2 대 지상파채널 텔레페(Telefe)와 엘트레세(EI Trece)의 인기 프로그램 또한 시청할 수 있다. 현재 가입자 수는 10 만 가구(유료 서비스 가입자에 한함)로 집계되고 있으며 텔레포니카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스피디(Spedy) 가입자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월 374 페소(약 26.91 달러)¹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가입하면 온비디오 라이트(On Video Lite)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150 편까지 원하는 영상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인터넷 가입 외 별도의 비용의 유료서비스로는 온비디오(On Video)가 있는데 디지털 TV 셋톱박스 설치와 비설치로 나뉜다. 비용은 50 페소로 시작하며 6 개월 후에 140 페소와 100 페소로 인상된 금액을 인터넷 비용과 함께 부과해야 하며 두 서비스 모두 매달 8000 편의 영상콘텐츠를 볼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PC, 스마트 TV, 스마트폰(안드로이드), 태블릿(안드로이드)이며 디지털 TV 셋톱박스 서비스는 일반 TV 도 가능하다.

<표-7> 온비디오 서비스 현황

서비스	가격(페소)	이용 편수	이용가능 기기	동시 접속 가능 여부
온비디오 라이트	인터넷 비용에 포함	150 편	PC/스마트폰/태블릿/ 스마트 TV/	-
온비디오	인터넷 비용+50 페소 6 개월 후 100 페소	8000 편	PC/스마트폰/태블릿/ 스마트 TV/	3 기기 동시 가능
온비디오 디지털 TV	인터넷 비용+50 페소 6 개월 후 140 페소	8000 편	PC/스마트폰/태블릿/ 스마트 TV/TV	3 기기 동시 가능

자료출처: <http://www.telefonica.com.ar/productos/entretenimiento/on-video>

3) 아르넷플레이(Arnet Play)

텔레포니카와 함께 아르헨티나 통신사업을 이끌고 있는 텔레콤에서 2011 년에 시작한 OTT 플랫폼. 텔레콤은 서비스를 위해 1 억 2000 달러를 투자했으며 텔레콤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아르넷(Arnet) 가입자에게 제공된다. 기본 브로드밴드 서비스(255 페소~565 페소, 인터넷 속도에 따른 차등 가격)에 35 페소를 추가하면 아르넷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아르넷 가입자는 3 백만 가구이고 약 5 만 가구가 추가비용을 통해 아르넷플레이 혜택을 받고 있다. 매달 수천편에 달하는 영상콘텐츠를 볼 수 있고 국영방송 카날시에테(Canal 7), 교육전문방송 파카파카테베(Pakapaka), 엘카날 쿨투라 엔쿠엔트로(el canal cultural Encuentro), 자국영화 전문채널 인카테베(IncaaTV), 테크노폴리스(Tecnópolis), 세에네 23(CN23), 세싱코에네(C5N), 타테티(Tateti), 스포츠전문방송 데포르테베(DeporTV)의 콘텐츠도 확보, 다양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C 를 비롯해,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에서 동시에 영상콘텐츠를 볼

¹ 1달러=13.40 페소(2016년 1월 21일 기준)

수 있으며 화질은 SD 에서 HD 까지 가능하다. 또한, 핀코드(PIN CODE) 입력을 통해 미성년자의 영상물 시청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표-8> 아르넷플레이 서비스 현황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격(페소)	이용 편수	이용가능 기기	동시 접속 가능 여부
6M	255 페소+35 페소	제한 없음	PC/스마트폰/타블릿/ 스마트 TV	3 기기 동시 가능
10M	295 페소+35 페소			
15M	335 페소+35 페소			
20M	525 페소+35 페소			
30M	565 페소+35 페소			

자료출처: <http://venta.arnet.com.ar/DetalleOfertaTXT/7d4f9588-9b63-4443-99c1-75446c96949a?mod=publicity>

4) 쿠빗테베(Qubit.tv)

2010 년,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리아노 프리마베라(Mariano Primavera)와 루이스 페레스 엔다라(Luis Pérez Endara)가 설립한 OTT 서비스 스타트업. 쿠빗테베는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OTT 플랫폼에 맞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 TV 사업자 등과의 제휴를 이용한 B2B(Business to Business)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노렸고 다른 군소사업자들과 달리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와 같은 인근 라틴 아메리카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에서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2014 년 보고타에 사무실을 연 이후 2015 년까지 20 만 가입자를 유치했고 2016 년에는 50 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힘입어 자본금 8 만 페소에 시작한 쿠빗테베는 연 평균 100 만 명이 이용하며 1 억 5000 만 페소의 수익을 내는 OTT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한 상태다.

가입 후 한달 동안은 무료로 영상콘텐츠 사용이 가능하며 월정액은 90 페소로 책정되어 있으며 보유 콘텐츠의 수는 3000 편이다. 다른 OTT 플랫폼처럼 PC, 스마트폰, 타블릿, 스마트 TV 등에서 이용과 동시 접속이 가능하며 iOS,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등 모든 OS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및 라틴 아메리카 영상콘텐츠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자국영화 섹션이 따로 있고 2013 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BAFICI)에서 선보인 24 편의 영화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표-9> 쿠빗테베 서비스 현황

가격	이용 편수	이용가능 기기	동시 접속 가능 여부	특이사항
90 페소	제한 없음	PC/스마트폰/타블릿/스마트 TV	2~3 기기 동시 가능	가입 후 1 달 무료

자료출처: <http://www.qubit.tv/>

5) 오데온(Odeon)

[사진 2] INCAA 의 OTT 플랫폼 오데온(ODEON)



자료출처: <https://www.odeon.com.ar/#/bienvenida>

2015 년 11 월, 퇴임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대통령은 “오늘, 오데온을 소개한다”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겸손하게 라틴 아메리카를 위한 작은 넷플릭스가 탄생했다”고 오데온의 탄생을 공표했다.

국립영화영상예술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ine y Artes Audiovisuales, INCAA)와 국영 위성통신사 아르샷(ARSAT)의 야심작인 오데온은 넷플릭스와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영화와 시리즈물만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능 지역 또한 아르헨티나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추후 라틴 아메리카 영상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2 월부터는 광고기반 서비스를 진행하고 5 월에는 유료로 전환한다. HD 영상이 제공되지만 어플리케이션이 제작되지 않아 스마트폰 및 타블릿 등에서는 영상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 정부와 다른 기조를 지닌 정부가 들어섰고 INCAA 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수장 역시 변화가 있어 아르헨티나 넷플릭스가 생존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4. OTT 관련 주요 이슈

1)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아르헨티나 최대 케이블 TV 사업자 카블레비시온(Cablevisión)이 올 3 월부터 OTT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운영방법은 기존 사업자와 비슷한 형태이며 베리매트릭스(Verimatrix)와 콘텐츠와이즈(ContentWise)와 같은 사업자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카블레비시온의 카를로스 몰티니(Carlos Moltini) 대표는 “넷플릭스와 훌루와 같은 타입의 OTT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존과는 달리 가격과 같은 조건에서의 차이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통신사업자 텔레포니카도 2016 년, 150 억 달러를 투자해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4G 와 OTT 사업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룩셈부르크 국적의 통신사업자 밀리컴(Millicom) 역시 이동통신브랜드 티고(Tigo)를 앞세워 2016 년 2, 3 분기에 OTT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2) 해적판 OTT 플랫폼 문제

라틴 아메리카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 억 2230 만 가구다. 이 중 50%인 1 억 1050 만 명이 불법 OTT 플랫폼을 이용해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사이버락커스(Cyberlockers)로 전체의 28.2%인 6270 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피어투피어(Peer to Peer)가 20.7%인 4610 만 명,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IPTV 가 4%, 880 만 명의 이용자 수를 나타냈다. 2015 년 한해 동안만 불법 플랫폼을 통해 영상물을 관람한 시간은 15 억 시간이며, 데이터용량으로는 789 페타바이트(petabytes)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쿠에바나(Cuevana)가 대표적인 불법 OTT 플랫폼이다. 2009 년, 마리오 카로시오(Mario Carosio), 다빗 페르난데스(David Fernández), 토마스 에스코바르(Tomás Escobar)에 의해 만들어진 쿠에바나는 2011 년에 아르헨티나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사이트 ‘TOP 2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며 그 해에만 하루 평균 50 만 명의 이용자가 드나들었다. 높은 인지도를 반영하듯 같은 해 12 월에는 자국영화 <스테파니에(Stephanie)>를 극장에 개봉하지 않고 바로 웹사이트에 선보이기도 했으며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아르헨티나와 인접한 국가에서도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2014 년에는 모바일 버전인 쿠에바나 스톰(Cuevana Storm)을 출시하기도 했지만 2015 년 2 월에 정지되고 국내외에서 서비스 정지와 각종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디렉티브 라틴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만(Michael Hartman)은 “온라인 해적판 영상물들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위협이 되는 존재다”고 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제재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5. 나오는 말

2011년 9월, 세계최대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아르헨티나에 상륙한 이후, 텔레포니카, 텔레콤과 같은 대형 통신사들이 앞다퉀 관련 서비스를 개설하는 등 관련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브로드밴드시장의 확대되고 본격적인 LTE 시대를 맞아 OTT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브로드밴드 정책은 2000년 개정된 '통신시장규제완화법(Decreto No 764/2000)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0월 18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andez) 대통령은 국가통신계획 '아르헨티나 코넥타다(Argentina Conectada)'를 발표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5개년 국가 계획으로, 기존에 진행되던 개별 국가 통신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상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Decreto No.1522/2010' 제 2항에 의거하여 집행위원회인 'Comisión de Planificación y Coordinación Estratégica del Pla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를 구성했다. 의장직은 연방기획·공공투자 및 서비스부에서 수행하고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정보통신부(Secom) 산하 기업이기도 한 국영 위성통신사 아르샷(AR-SAT, Empresa de Soluciones Satelitales SA)이 담당한다. 아르헨티나 코넥타다는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1000만 회선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아르샷은 아르헨티나에서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시작하여 4,200km의 백본망 구축했으며 2014년 8월 기준 2만 5,800km의 백본망을 추가로 구축, 아르헨티나 1,461개 지역 총 3만 km의 백본망 구축 완료한 상태다. 2015년 말에 들어선 새 정부의 성향을 볼 때 본 프로젝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직간접적으로 OTT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산업이 커지면서 쿠빗테베와 자국 플랫폼의 양산과 오데온과 같은 자국영화 및 영상콘텐츠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도 지켜볼 부분이다.

6. 자료출처

「Global OTT TV & Video Forecasts」, Digital TV Research

<https://comunidad.movistar.com.ar/threads/29955-Telef%C3%B3nica-Argentina-m%C3%A1s-4G-VoLTE-y-OTT-en-2016#.VqGa-prhCzc>

<http://nextvlatam.com/el-producto-ott-de-cablevision-de-argentina-se-lanzara-en-marzo-de-2016-1884/?lang=es>

<http://es.rapidtvnews.com/es/2015072422382/el-streaming-de-video-impulsa-la-demanda-de-datos-moviles-en-argentina#axzz3xq139UPx>

<http://www.thedailytelevision.com/articulo/research/argentina-mercado-ott-supera-el-millon-de-suscriptores-ayudado-por-netflix>

<http://nextvlatam.com/el-ott-qubit-tv-renovo-su-plataforma-y-ahora-ofrece-crear-hasta-cuatro-perfiles-y-da-un-mes-gratis-a-nuevos-usuarios/?lang=es>

<http://revistafibra.info/el-boom-del-ott-en-america-latina/>

<https://www.fayerwayer.com/2011/09/asi-sera-netflix-en-argentina/>

<http://www.thedailytelevision.com/articulo/research/2025-visualizacion-millennial-empuja-ott-en-latam-us8000-millones>

<http://vos.lavoz.com.ar/tv/netflix-odeon-qubit-tv-cablevision-u-otros-como-elegir-el-mejor-servicio-demand>

<http://www.infotechnology.com/internet/Que-es-Qubit-la-alternativa-argentina-y-legal-a-Netflix-20150325-0003.html>

<http://www.prensario.net/14961-QubitTV-expansion-regional-y-contenido-propio.note.aspx>

<http://www.startups.com.ar/2015/05/qubit-tv-la-mejor-manera-de-ver-peliculas-online-el-netflix-argentino/>